

1세 영아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대한 Q-sort 분석

Q-sort Description on Maternal Behaviors of One-Year-Old Infants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학과
부교수 박경자

Dept. Child &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Park, Kyung Ja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 결과 | |

<Abstract>

Maternal behaviors of Korean mothers of one-year-old infants (26 boys and 21 girls) were observed at home. Mothers were from middle to upper-middle class families in Seoul. Trained observers visited the infant's home for 3 to 4 hours and observed infant-mother interactions in natural situation. After the home visit, observers sorted the Maternal Behavior Q-set into 9 piles, from most characteristics to least characteristics of the mothers. In general, Korean mothers were quite sensitive and responsive in their interactions with one-year-old babies. Mothers interpreted baby's cues correctly, noticed when baby was distressed, and slowed pace down to wait for baby's response. Maternal behaviors were somewhat different according to whether they interacted with boys or girls. Mothers of boys were observed to be less sensitive in their interactions than mothers of girls. Mothers of boys were more unaware of or insensitive to baby's signs of distress, their responses were more delayed, and provided baby to constant and unphased barrage of stimulation thus made baby overwhelmed. In contrast, mothers of girls enjoyed face-to-face interactions, slowed pace down, and their interactions revolved around baby's tempo and state.

주제어(Key Words): 1세 영아(one-year-old infants), 양육행동(maternal behavior), Q-sort 분석(Q-sort description)

I. 서론

부모, 형제, 가정, 또래, 학교는 아동의 발달에 영

향을 미치며, 아동의 연령에 따라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가 다르지만, 영·유아기 동안

아동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 특히 어머니의 양육 행동이다. 이에 따라 어머니 양육 행동의 특성을 규정하고, 어머니 양육 행동과 아동 발달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부모 양육 행동을 유형화하고자 한 대표적인 연구로, Baumrind(1973)는 부모의 양육 행동을 권위 있는, 권위적인, 허용적인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의 차이를 보고하였다. Maccoby와 Martin(1983)은 요구의 정도/통제와 수용/반응성의 두 가지 차원이 아동기와 청년기를 거치는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부모 양육 행동이라고 하였다.

이제까지의 연구 결과들은 어머니 양육 행동이 아동 발달과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어머니의 민감하며 적절한 반응과 따뜻하고, 합리적이며, 민주적 양육 방식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박 응임, 1998; 조 은영, 1996; Baumrind, 1973), 친사회적 행동(권 연희·박 경자, 1997), 반응성(박 응임, 1998), 사회적 활동성, 사려성과 이타성, 사회적 적응(유 우영·이 숙, 1998), 그리고 또래로부터 받는 부정적 지명의 수(이 은혜·박 경자·정 현숙, 1998)와 관계가 있다.

영아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 특히 어머니의 양육 행동이다. 따뜻하고, 민감하며 영아에게 자주 말을 걸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어머니는 영아의 안정적인 애착 형성과 호기심, 탐색하고자 하는 동기, 사회성과 지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Ainsworth, 1979; Belsky, 1981). Ainsworth(1979)는 영아가 어머니에게 형성하는 애착의 질은 처음 1년 동안 어머니에게 받는 양육의 질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어머니 양육 행동 중에서도 영아가 보내는 신호에 대해 적절하게 해석하고, 그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해 주는 민감성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Ainsworth의 애착에 있어 양육 가설에 대한 주장은 추후의 연구들에서 입증되고 있다(De Wolff & van IJzendoorn, 1997). 어머니 양육 행동의 질적 특성 중에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갖는 긍정적인 태도, 자녀의 욕구에 대한 민감성, 상호 작용에 있어서의 조화와 일치 여부, 다양한 자극

과 정서적 지지는 영아의 안정적 애착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의 질은 아동의 이후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어머니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영아는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영아에 비해 이후의 발달에 있어 더 바람직한 모습을 보였다. 생후 1세 전후에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영아들은 2세가 되었을 때 문제 해결력이 더 좋았고(Frankel & Bates, 1990), 상상 놀이에서 더 복잡하고 창의적인 놀이를 보였으며(Pipp, Easterbrooks & Harmon, 1992), 또래들에게 더 매력적인 놀이 친구로 선호되었고(Fagot, 1997), 놀이를 주도하고 또래들의 감정과 요구에 민감하며, 또래들로부터 인기가 좋았다(Waters, Wippman & Sroufe, 1979).

어머니들의 양육 행동이 자녀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는 선행 연구 결과들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부모의 양육 행동이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결과도 보고되었고(박 성연·임 희수, 2000; 연 미희, 1998; 임 희수·박 성연, 1994; Rubin, Hasting, Chen, Stewart & McNichol, 1998),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다. 권 연희와 박 경자(1997)는 중류층의 5세 아동을 둔 어머니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어머니가 남아보다 여아에게 더 온정적이고 일관되게 대하며, 추론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남아에게 더 많은 양의 통제를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팍 혜경과 조 복희(1999)도 3세 유아를 둔 중상류층의 어머니들이 남아에게 더 통제적이었음을 보고하였다. 유 우영과 이 숙(1998)은 2~5세 유아를 둔 어머니들이 남아에게는 과보호 행동을, 여아에게는 일관된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어머니들은 자녀의 성에 따라 양육 행동에 차이가 없거나, 차이를 둔다면 아들을 더 과보호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부모의 양육 행동에 대한 연구들은 부모 양육 행동과 자녀의 발달과의 관계를 상관 관계에 기초하여 분석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실제로 우리 나라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떤 행동을 보이는 지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들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자녀들과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가를 관찰한 이 영, 신 은주, 나 종혜(1995 a)는 중류층 가정의 15~30개월 유아를 가진 어머니가 자녀와 상호작용을 하며 함께 보내는 시간은 개인에 따라 달랐으나, 대부분 2시간 미만(53%)과 2~4시간 정도(30%)였다고 보고하였다. 어머니와 유아가 함께 하는 활동은 책보기, 노래하기, 장난감 갖고 놀기, 학습용 비디오보기, 그리고 함께 외출하기 등이었다. 어머니가 유아에게 보이는 양육 행동으로는 언어발달 촉진, 긍정적 사회정서 반응, 그리고 기본 양육에 관련된 환경 조성이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언어 발달 촉진 행동에서는 질문이나 제안하기, 언어적 모델 보이기, 칭찬이나 격려하기, 유아 언어 확장하기가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긍정적 사회 정서 반응 행동에는 미소 짓기, 안아주기, 눈을 응시하기 등이 많았고, 기본 양육에 관련된 환경 조성에는 음식 제공, 놀이감 정리 등이 많았다.

반면에 18~30개월 유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서 전업 주부인 어머니의 대부분이(80%) 하루에 2시간 미만 동안 아기와 상호작용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 영, 신 은주, 나 종혜 1995 b). 어머니가 영아와 함께 하는 시간도 외출하여 누군가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고, 어머니와 집안에서 함께 있을 때는 책 읽어주기, 노래하기, 장난감 갖고 놀기, 만들기, 그림 그리기 등의 활동을 하였다. 따라서 어머니들의 양육 행동은 거주 지역이나 가정의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라 질적 내용과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 행동은 자녀의 연령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2~5세 유아를 둔 어머니들은 유아의 연령이 낮을수록 과보호를, 연령이 높을수록 거부/통제적 행동을 많이 보였다(유 우영·이 숙, 1998). 또한 5세 유아의 어머니들은 3세 유아의 어머니들보다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의 점수가 높았다(연 미희, 1998). 그러나 1세 전후의 영아를 둔 어머니들이 영아에게 어떤 양육 행동을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는 별로 찾아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영아의 사회화 과정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어머니 양육 행동의 특성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어머니가 가정에서 1세 영아와의 상호 작용에서 보이는 민감성과 반응성에 초점을 두고 어머니의 행동을 기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정에서 어머니가 자녀와 일상적인 상황에서 상호작용 하는 것을 외부 관찰자가 관찰한 후 Q-sort 분석에 의해 각 문항이 어머니의 특성과 얼마나 가까운지, 다른지를 통해 어머니가 1세 영아와 상호 작용할 때 보이는 행동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나라 1세 영아 어머니들의 양육행동은 어떠한가? 그리고 영아 어머니들의 양육행동에서 가장 특징적인 행동들은 무엇인가?

둘째, 영아의 성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만 1세 영아(남아 26명, 여아 21명)를 둔 어머니 47명이다. 이들은 영아의 애착 안정성에 관한 연구(박 경자, 1999)에 참여한 어머니들로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놀이 프로그램과 연구자 주변에서 임의 표집에 의해 선정되었다. 어머니의 양육 행동은 사회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선행 연구들(임 회수·박 성연, 1994; Maccoby, 1980)의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중상류층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관찰일을 기준으로 만 1세에서 전후로 2주(평균 연령=12.4개월, S.D.=.92개월)된 영아의 어머니이다. 연구 대상 어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31.4세(S.D.=3.2)이었다. 이 어머니들은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부분의 어머니(42명, 87.2%)가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졌다. 또한 이들 중 36명(76.6%)은 전업 주부이고 11명은 취업모이며, 취업모의 대부분(10명)은 전문직에 종사하였다. 영아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 취업 여부(남

아 6명, 여아 5명의 어머니가 취업)와 교육 수준 등의 어머니 변인에서 차이가 없었다. 연구 대상 영아 중 37명(79%)은 어머니가 주양육자이고, 5명(11%)의 영아는 친척, 5명(11%)의 영아는 친척 외의 타인이 주양육자이었다.

2. 어머니 양육 행동 관찰의 절차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양육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 Pederson과 Moran(1995)이 개발한 어머니 행동 Q-set(Maternal Behavior Q-set)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어머니 행동 Q-set는 영아가 어머니의 반응을 요구하는 신호나 상황을 어머니가 포착하고 인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반응하는지에 관한 어머니의 경향성을 측정하는 9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문항들은 어머니가 영아와 상호작용 하는 양식, 영아의 상태에 대한 민감성, 수유시의 상호 작용, 가정이 어느 정도 아기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지와 같은 어머니의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

어머니의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훈련된 4명의 관찰자가 영아의 가정을 방문하였다. 관찰자들은 영아가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시간대에 영아의 집을 방문하여 3~4시간 동안 영아와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자세한 기록을 하면서 관찰하였다. 첫 번째 방문에서 관찰이 충분히 되지 않은 경우에는 2차 방문을 하여 관찰을 보완하였다. 가정 방문을 끝낸 후 이와 같은 관찰 기록에 기초하여 관찰자들은 어머니 행동 Q-set을 분류하였다. 관찰자들은 Q-set의 90개 문항을 어머니의 행동과 비슷한 정도에 따라 어머니의 행동과 가장 비슷한 문항(10문항)에서부터 가장 비슷하지 않은 문항(10문항)까지 각각의 파일에 10문항씩 9개의 파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9개의 파일로 분류된 문항들에 대해 어머니의 행동을 특징적으로 가장 잘 나타내는 10개의 문항들은 9점으로, 어머니의 행동과 가장 비슷하지 않은 10개의 문항들은 1점으로 각각의 파일을 점수화하였다. 따라서 각 문항의 점수가 9점에 가까울수록 그 문항이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 유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관찰자들은 대학에서 아동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아동 발달을 전공하는 학생들로서, 이들은 모두 어머니 행동 Q-set를 위한 관찰과 분류 방법에 대해 연구자로부터 집중적인 훈련을 받았다. Q-set의 개별 문항에 익숙해 진 후, 관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와 관찰자들이 연구 대상과 동일한 연령의 영아 3명의 가정을 함께 방문하여 3~4시간 동안 어머니 행동을 관찰하고 난 후, Q-set를 9파일로 나누어 점수화하였다. 이 때 각 문항의 분류에서 관찰자간에 2점 이상의 차이가 나는 문항들에 대해서는 관찰기록에 기초하여 집중적인 토론을 통해 그 차이를 줄이도록 하였다. 이러한 훈련 과정을 통해 본 연구자와 4명의 관찰자들간의 Q-set 분류에서 각 문항의 점수 차이가 2점 이내이고, 관찰자간 상관 계수가 평균 .90(범위 .88-.92)에 도달하였을 때 본 관찰을 실시하였다.

3. 자료 분석

어머니 행동 Q-set의 분류에 기초하여 각 문항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또한 영아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문항별로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 행동의 각 문항별 점수는 서구에서 개발된 어머니 민감성 기준 점수와 비교하여 해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영아 어머니들의 양육 행동 특징

만 1세 영아를 둔 어머니들의 양육행동의 특징을 보기 위해 각 문항별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였고 이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각 문항별 평균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문항은 “아기의 반응으로 볼 때 아기가 보내는 신호를 옳게 해석한다”(문항 12: M=8.09)였다. 또한 “아기와 같은 방에 있을 때, 아기가 아무 제한 없이 자신에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문항 67: M=8.06)도 매우 높게 관찰되었다. 그

〈표 1〉 어머니 행동 Q-set의 문항별 평균과 민감성 기준 점수

문항 번호	평균 (표준편차)	기준 점수	문항 번호	평균 (표준편차)	기준 점수	문항 번호	평균 (표준편차)	기준 점수
1	7.36(1.6)	8.00	31	6.51(2.2)	5.58	61	6.21(1.9)	8.08
2	2.81(2.2)	1.00	32	6.55(1.9)	5.83	62	3.87(2.1)	2.17
3	2.64(1.4)	1.92	33	6.40(1.8)	6.00	63	6.43(2.2)	8.83
4	2.47(1.6)	1.33	34	6.96(1.7)	7.00	64	7.36(2.0)	8.17
5	7.94(1.5)	7.92	35	5.68(2.4)	6.17	65	3.72(2.2)	2.58
6	7.02(1.7)	8.50	36	7.47(1.4)	6.75	66	5.91(2.1)	8.25
7	3.34(2.2)	1.25	37	7.21(1.5)	6.25	67	8.06(1.2)	7.67
8	2.15(1.3)	1.33	38	5.66(2.0)	6.50	68	3.15(2.2)	1.42
9	7.64(1.6)	8.92	39	6.87(2.1)	6.00	69	2.79(1.3)	3.92
10	4.23(1.7)	7.25	40	6.64(2.5)	6.75	70	3.66(2.3)	3.33
11	4.02(2.8)	2.25	41	3.66(2.0)	3.67	71	2.91(1.2)	2.08
12	8.09(1.2)	9.00	42	6.47(1.8)	6.92	72	2.74(1.6)	4.33
13	2.91(1.6)	2.75	43	4.43(0.9)	4.25	73	2.96(2.0)	1.50
14	3.32(1.9)	4.08	44	6.66(1.4)	7.42	74	2.94(1.9)	1.58
15	6.13(1.2)	7.58	45	6.60(1.7)	7.58	75	3.11(2.1)	3.83
16	2.47(2.0)	2.00	46	7.30(1.5)	8.17	76	3.77(1.8)	3.50
17	3.98(2.2)	3.92	47	7.11(1.3)	7.67	77	4.79(1.8)	3.42
18	6.98(1.3)	7.17	48	6.43(1.4)	5.08	78	2.26(1.1)	2.42
19	2.68(1.2)	2.58	49	6.85(1.5)	6.17	79	5.60(2.6)	5.58
20	2.34(1.1)	2.50	50	3.83(2.2)	3.75	80	2.62(1.9)	2.67
21	6.83(1.4)	5.75	51	3.83(1.9)	3.58	81	4.19(1.6)	4.25
22	6.09(1.3)	6.83	52	3.11(1.5)	1.67	82	4.11(2.1)	5.50
23	6.96(1.2)	7.67	53	6.60(2.1)	8.58	83	5.38(1.9)	3.50
24	7.04(1.4)	7.17	54	7.45(1.7)	9.00	84	2.62(0.9)	2.67
25	3.85(1.6)	4.25	55	3.40(2.2)	2.42	85	5.62(2.0)	5.08
26	2.55(1.1)	3.50	56	4.17(1.5)	4.33	86	6.66(1.6)	6.25
27	3.43(1.8)	4.67	57	2.53(1.8)	1.25	87	2.11(1.3)	3.08
28	2.96(1.7)	1.67	58	7.66(1.2)	8.08	88	3.68(2.2)	2.33
29	7.72(1.7)	8.83	59	2.32(1.6)	1.75	89	4.74(1.9)	5.75
30	7.43(1.3)	5.67	60	7.15(1.5)	8.75	90	7.19(1.8)	6.08

외에 “아기가 불편해 하거나 울고, 떼쓰고, 훌쩍거리릴 때 주목한다” (문항 5; M=7.94), “일대일의 상호작용에서 아기의 반응을 기다려 주고 속도를 천천히 한다” (문항 29; M=7.72), “아기의 기분과 상태가 변하는 것을 인식한다” (문항 58; M=7.66), “아기에 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기분이다” (문항 36; M=7.47), “상호작용은 아기의 템포와 현재의 상태를 고려하여 진행된다” (문항 54; M=7.45), “아기와 짝꿍이나 까꿍 놀이와 같은 게임을 한다” (문항 30; M=7.43), “아기가 울거나 흐느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문항 64번; M=7.36), “아기가 미

소짓고 소리낼 때 주목한다” (문항 1번; M=7.36)도 모두 우리 나라 어머니가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행동 특성과 아주 비슷한 문항으로 관찰되었다.

우리 나라 어머니들의 양육 행동을 비교하고 해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의 양육 행동을 서구의 전문가들이 개발한 민감성 기준 점수와 비교해 보았다. 민감성 기준 점수는 전문가들이 가장 민감한 어머니의 상을 염두에 두고 어머니 행동 Q-set의 90개의 문항들을 영아에게 민감한 정도에 따라 가장 민감한 어머니의 행동에서부

터 가장 민감하지 않은 어머니 행동에 이르기까지 9개의 파일에 10문항씩 분류한 후, 각 문항별로 전문가들이 분류한 점수의 평균을 구한 점수이다. 따라서 기준 점수는 1.00~9.00의 점수 범위를 가질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문항은 민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들의 특징적으로 양육 행동으로 관찰된 문항들은 기준 점수로 5.67(문항 30)~9.00(문항 12; 문항 54)의 범위로 비교적 높은 점수 분포를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1세 영아와 상호작용을 할 때 전반적으로 자녀가 보내는 신호를 바르게 해석하고, 아기와 상호작용의 속도를 조절하는 등 민감한 양육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관찰된 어머니 행동이 전문가들에 의해 영아와의 상호 작용에서 민감한/민감하지 않은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 점수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는 어머니 양육 행동에서 보완할 점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민감성 기준 점수와 실제 관찰된 어머니의 양육 행동의 점수가 2점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문항 53 “아기와 상호작용을 잘 해결한다”(M=6.60); 문항 63 “음식을 만들거나 방문자와 대화하는 것과 같은 다른 활동에 참여할 때에도 아기를 모니터링하고 아기에게 반응한다(M=6.43)”; 문항 66 “아기의 신호를 지각할 수 있도록 자신의 위치를 조정한다”(M=5.91) 등이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아기의 최적의 발달을 돕기 위해서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영아와 함께 있을 때 아기의 상태를 점검하고 신호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위치를 조정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양육 행동에서 평균이 낮아서 특징적이지 않은 양육 행동으로 관찰된 10개의 문항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기와 얼굴을 마주 보고 직접적으로 상호작용 할 때 어색해 보이고 불편해 보인다”(문항 87; M=2.11); “아기의 의사 소통에 대한 반응이 비일관적이고 예측할 수 없다”(문항 8; M=2.15); “아기의 요구보다는 어머니의 편리에 의해서 낮잠 시간이 결정된다”(문항 78; M=2.26); “아기와 상호작용이 거

칠거나 참견하는 것 같다”(문항 59; M=2.32); “불편해 하거나 어머니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아기의 신호에 화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문항 20; M=2.34); “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늦어서 아기는 그 반응이 자신의 어떤 행동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연결시킬 수 없다”(문항 4; M=2.47); “아기가 하고 있는 적절한 행동을 종종 간섭한다”(문항 16; M=2.47); “아기에게 계속적이고 상관이 없는 자극을 연속해서 주어, 아기가 이에 압도된다”(문항 57; M=2.53);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진술이 비판적이다”(문항 26; M=2.55); “아기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자세를 바꿔줄 때, 종종 아기를 무생물처럼 다룬다”(문항 84; M=2.62); “아기의 부정적인 행동을 자신에 대한 거부로 인식하고, 아기의 잘못된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문항 19, M=2.68) 등이다.

이 문항들의 기준 점수는 1.25(문항 57)~3.50(문항 26)으로 낮은 민감성 기준 점수를 보였다. 즉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1세된 영아들과 상호작용 할 때 특징적이지 않은 것으로 관찰된 문항들이 대체적으로 민감성 기준 점수들이 낮아, 이를 통해서도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양육행동이 비교적 아기에게 민감하고 적절한 것으로 해석된다.

2. 영아의 성에 따른 어머니 양육 행동

본 연구에서 영아의 성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 행동은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영아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들의 특징적인/특징적이지 않은 양육 행동을 보기 위해 Q-set 문항 중 남아, 여아 어머니별로 평균이 높은 문항들과 낮은 문항들을 10 문항씩 선정하였다. 두 번째로는 Q-set의 90개 문항별로 t 검증을 실시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토하였다.

1) 남아 어머니들의 양육 행동

어머니가 1세인 아들과 상호 작용 할 때 특징적인 점을 알기 위해 Q-set의 평균이 높은 문항을 순위에 따라 선정하였다. 남아 어머니들의 특징적인 양육 행동 중 상위 11개의 문항(동점 포함)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서 보면 남아 어머니들은 “아기와 같이 있을 때 아기가 아무 제한 없이 자신에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문항 67)는 문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리고 “아기의 반응으로 볼 때 아기의 신호를 옳게 해석한다”(문항 12); “아기가 불편해 하거나, 울고, 떼쓰고, 훌쩍거리릴 때 주목한다”(문항 5); “아기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기분이다”(문항 36); “아기와 짹짹이나 까꿍 놀이와 같은 게임을 한다”(문항 30)를 비교적 많이 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남아 어머니들의 특징적인 행동은 민감성 기준 점수에서 5.67(문항 30)~9.00(문항 12)의 분포를 보여 대체적

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 어머니들이 아들에게 비교적 민감한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 어머니의 행동 중 점수가 낮아, 특징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점수 순서에 따라 11문항(동점 포함)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남자 영아를 둔 어머니들의 행동에서 “아기의 요구보다는 어머니의 편리에 의해서 낮잠 시간이 결정된다”(문항 78)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어머니 행동 중 가장 특징적이지 않은 행동으로 관찰되었다. 그리고 “아기의 의사 소통에 대한 반응이 비일관적이고 예측할 수 없다”(문항 8); “아기의 부정적인 행동을 자신에 대한 거부로 인식하고, 아기의 잘못된 행동을 ‘개인적’으로

<표 2> 남아 어머니들의 특징적인 양육 행동

문항 내용	평균(표준편차)	기준점수
67. 아기와 같은 방에 있을 때, 아기가 아무 제한 없이 자신에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8.19(1.2)	7.67
12. 아기의 반응으로 볼 때, 아기의 신호를 옳게 해석한다.	7.81(1.4)	9.00
5. 아기가 불편해 하거나, 울고 떼쓰고, 훌쩍거리릴 때 주목한다.	7.62(1.8)	7.92
36. 아기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기분이다.	7.42(1.6)	6.75
30. 아기와 짹짹이나 까꿍 놀이와 같은 게임을 한다.	7.35(1.5)	5.67
9. 아기의 신호에 일관되게 반응한다.	7.27(1.7)	8.92
58. 아기의 기분과 상태가 변하는 것을 인식한다.	7.19(1.3)	8.08
64. 아기가 울거나 흐느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7.19(2.3)	8.17
90. 아기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범위 내에 장난감이나 다른 물건을 종종 갖다 놓으며, 그것에 아기가 흥미를 느끼게 한다.	7.19(1.4)	6.08
29. 일대일의 상호작용에서 아기의 반응을 기다려주고 속도를 천천히 한다.	7.15(2.0)	8.83
37. 아기에 관해 말할 때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긍정적이다.	7.15(1.7)	6.25

<표 3> 남아 어머니들의 행동 중 특징적이지 않은 행동들

문항 내용	평균(표준편차)	기준점수
78. 아기의 요구보다는 어머니의 편리에 의해서 낮잠시간이 결정된다.	2.04(1.1)	2.42
8. 아기의 의사소통에 대한 반응이 비일관적이고 예측할 수 없다.	2.31(1.4)	1.33
19. 아기의 부정적인 행동을 자신에 대한 거부로 인식하고, 아기의 잘못된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	2.35(1.2)	2.58
87. 아기와 얼굴을 마주 보고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어색해 보이고 불편해 보인다.	2.35(1.6)	3.08
72. 언뜻 보아서, 이 가정에 영아가 있다는 증거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2.46(1.8)	4.33
20. 불편해 하거나 어머니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아기의 신호에 분개하는 것으로 보인다.	2.54(1.2)	2.50
26.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진술이 비판적이다.	2.61(1.3)	3.50
84. 아기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자세를 바꿔줄 때, 종종 아기를 무생물처럼 다룬다.	2.73(0.8)	2.67
80. 아기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일이 거의 없다.	2.77(1.9)	2.67
3. 종종 아기의 신호를 어머니 자신의 바람과 기분에 따라 해석한다.	2.81(1.7)	1.92
16. 아기가 하고 있는 적절한 행동을 종종 간섭한다.	2.81(2.3)	2.00

받아들인다”(문항 19); “아기와 얼굴을 마주 보고 직접적으로 상호 작용할 때 어색해 보이고 불편해 보인다”(문항 87)도 어머니의 행동으로 낮은 점수를 보여 특징적이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민감성 기준 점수에서 1.33(문항 8)~4.33(문항 72)의 낮은 분포를 보여, 어머니가 남아와의 상호작용에서 민감하지 않은 행동들을 비교적 적게 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여아 어머니의 양육 행동

여아 어머니들의 양육 행동 중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 10개의 문항은 <표 4>와 같다. 여아 어머니의 양육 행동 중에서는 “아기의 반응으로 볼 때, 아기

의 신호를 옳게 해석한다”(문항 12)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리고 “일 대 일의 상호작용에서 아기의 반응을 기다려 주고 속도를 천천히 한다”(문항 29); “아기가 불편해 하거나, 울고, 떼쓰고, 훌쩍거리릴 때 주목한다”(문항 5); “아기의 기분과 상태가 변하는 것을 인식한다”(문항 58); “상호 작용은 아기의 템포와 현재 상태를 고려해서 진행된다”(문항 54)도 여아 어머니들의 특징적인 양육행동으로 관찰되었다. 여아 어머니들의 특징적인 행동들은 민감성 점수에서 7.67(문항 67)~9.00(문항 12, 54)의 범위로 높은 점수의 문항들로서, 어머니가 1세 된 딸에게 매우 민감한 양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여아 어머니들의 특징적인 양육 행동

문항 내용	평균(표준편차)	기준점수
12. 아기의 반응으로 볼 때, 아기의 신호를 옳게 해석한다.	8.43(0.8)	9.00
29. 일대일의 상호작용에서 아기의 반응을 기다려주고 속도를 천천히 한다.	8.43(1.0)	8.83
5. 아기가 불편해 하거나, 울고, 떼쓰고, 훌쩍거리릴 때 주목한다.	8.33(0.9)	7.92
58. 아기의 기분과 상태가 변하는 것을 인식한다.	8.24(0.9)	8.08
9. 아기의 신호에 일관되게 반응한다.	8.10(1.3)	8.92
54. 상호작용은 아기의 템포와 현재 상태를 고려해서 진행된다.	8.05(1.0)	9.00
67. 아기와 같은 방에 있을 때, 아기가 아무 제한 없이 자신에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7.90(1.1)	7.67
46. 음식을 먹일 때 아기에게 신호를 주고 반응을 기다린다.	7.71(1.3)	8.17
1. 아기가 미소짓고 소리낼 때 주목한다.	7.67(1.3)	8.00
64. 아기가 울거나 흐느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7.57(1.6)	8.17

<표 5> 여아 어머니의 양육 행동 중 특징적이지 않은 문항

문항 내용	평균(표준편차)	기준점수
4. 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늦어서 아기는 그 반응이 자신의 어떤 행동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연결시킬 수 없다.	1.76(0.9)	1.33
87. 아기와 얼굴을 마주 보고 직접적으로 상호작용 할 때 어색해 보이고 불편해 보인다.	1.81(0.9)	3.08
57. 아기에게 계속적이고 상관이 없는 자극을 연속해서 주어, 아기가 이에 압도된다.	1.86(1.0)	1.25
2. 아기가 불편해하는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에 민감하지 않다.	1.95(1.6)	1.00
8. 아기의 의사소통에 대한 반응이 비일관적이고 예측할 수 없다.	1.95(1.2)	1.33
16. 아기가 하고 있는 적절한 행동을 종종 간섭한다.	2.05(1.4)	2.00
20. 불편해 하거나 어머니의 관심을 끌고자하는 아기의 신호에 분개하는 것으로 보인다.	2.10(0.8)	2.50
59. 아기와 상호작용이 거칠거나 참견하는 것 같다.	2.14(1.4)	1.75
74. 얼굴을 마주 보고 놀이를 하는 동안 아기의 “천천히” 혹은 “뒤로 물러나” 달라는 신호를 종종 놓친다.	2.38(1.4)	1.58
80. 아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일이 거의 없다.	2.43(1.9)	2.67
3. 종종 아기의 신호를 어머니 자신의 바램과 기분에 따라 해석한다.	2.43(1.0)	1.92

여아 어머니들의 양육 행동 중 낮은 점수를 보여 특징적이지 않은 것으로 관찰된 문항을 점수 순으로 11문항(동점 포함)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여아를 둔 어머니들의 행동 중에서는 “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늦어서 아기는 그 반응이 자신의 어떤 행동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연결시킬 수 없다”(문항 4)가 가장 특징적이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 외에 “아기와 얼굴을 마주 보고 직접적으로 상호 작용할 때 어색해 보이고 불편해 보인다”(문항 87); “아기에게 계속적이고 상관이 없는 자극을 연속해서 주어, 아기가 이에 압도된다”(문항 57); “아기가 불편해하는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에 민감하지 않다”(문항 2); “아기의 의사 소통에 대한 반응이 비일관적이고 예측할 수 없다”(문항 8)도 특징적이지 않은 행동들로 관찰되었다. 이 행동들은 민감성 기준 점수에서 1.00(문항 2)~3.08(문항 87)로 비교적 낮은 점수들로, 어머니들의 행동이 비교적 민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영아 성별에 따른 Q-set 문항의 차이

어머니 양육 행동에 있어 영아의 성별에 따른 차

이를 보기 위해 Q-set의 각 문항에 대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90개의 문항 중 14개의 문항에서 영아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이를 <표 6>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아의 어머니들은 여아의 어머니들에 비해 “아기가 불편해 하는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에 민감하지 않다”(문항 2); “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늦어서 아기는 그 반응이 자신의 어떤 행동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연결시킬 수 없다”(문항 4); “아기와 상호작용 할 때 무미건조하다”(문항 41); “아기에게 계속적이고 상관이 없는 자극을 연속해서 주어, 아기가 이에 압도된다”(문항 57); “잠시 후 돌아 올까와 같은 아무런 신호나 설명을 아기에게 해 주지 않고 방을 떠나는”(문항 83)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아의 어머니들은 남아의 어머니들 보다 “방에 다시 들어갈 때 아기에게 인사를 한다”(문항 10); “아기의 부정적인 행동을 자신에 대한 거부로 인식하고, 아기의 잘못된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문항 19); “일대일의 상호작용에서 아기의 반응을 기다려 주고 속도를 천천히 한다”(문항 29); “얼굴을 마주 보는 상호작용을 하려 한다”(문

<표 6> 영아의 성에 따른 어머니들의 행동

문항 내용	남	여	t
2. 아기가 불편해하는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에 민감하지 않다.	3.50(24)	1.95(16)	2.64*
4. 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늦어서 아기는 그 반응이 자신의 어떤 행동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연결시킬 수 없다.	3.04(18)	1.76(09)	3.07**
10. 방에 다시 들어갈 때 아기에게 인사를 한다.	3.65(17)	4.95(15)	-2.80**
19. 아기의 부정적인 행동을 자신에 대한 거부로 인식하고, 아기의 잘못된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	2.35(12)	3.10(10)	-2.26*
29. 일대일의 상호작용에서 아기의 반응을 기다려주고 속도를 천천히 한다.	7.15(20)	8.43(10)	-2.86**
34. 얼굴을 마주 보는 상호작용을 하려 한다.	6.50(20)	7.52(11)	-2.27*
41. 아기와 상호작용 할 때 무미건조하다.	4.27(22)	2.90(14)	2.57*
53. 아기와 의 상호작용을 잘 해결한다 - 아기가 만족스러워할 때 상호작용을 끝낸다.	5.96(25)	7.38(12)	-2.57*
54. 상호작용은 아기의 템포와 현재 상태를 고려해서 진행된다.	6.96(19)	8.05(10)	-2.47*
56. 항상 아기가 옷을 잘 입고 있고 매력적인지를 많이 걱정한다.	3.69(15)	4.76(13)	-2.59*
57. 아기에게 계속적이고 상관이 없는 자극을 연속해서 주어, 아기가 이에 압도된다.	3.08(22)	1.86(10)	2.56*
58. 아기의 기분과 상태가 변하는 것을 인식한다.	7.19(13)	8.24(09)	-3.14**
61. 같은 방에 있지 않을 때에도 아기에게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58(19)	7.00(14)	-2.81**
83. “잠시 후에 돌아 올까”와 같은 아무런 신호와 설명을 아기에게 해주지 않고 방을 떠난다.	5.96(18)	4.67(19)	2.44*

항 34): “아기와의 상호작용을 잘 해결한다” (문항 53): “상호작용이 아기의 템포와 현재의 상태를 고려하여 진행된다” (문항 54): “항시 아기가 옷을 잘 입고 있고 매력적인지를 많이 걱정한다” (문항 56): “아기의 기분과 상태가 변하는 것을 인식한다” (문항 58): “아기가 같은 방에 있지 않을 때도 아기에게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문항 61)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한국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1세 자녀들과 지낼 때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Q-sort의 방법을 사용하여 관찰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들은 1세 영아들이 보내는 신호와 상태에 대해 비교적 민감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은 아기의 신호를 옳게 해석하고, 아기가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아기가 울거나 불편해 할 때, 아기의 기분이나 상태가 바뀔 때 아기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일대 일의 상호작용에서 아기의 속도에 맞추고, 아기에게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이는 이상적으로 가장 민감한 어머니들을 기준으로 개발된 기준 점수와 이 어머니들의 Q-set 분류 점수간의 상관인 어머니 민감성 점수의 평균이 0.66(표준 편차 .20; 범위 .05~.90)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과도 일치한다 (박 경자, 1999).

어머니들이 만 1세 된 남아, 여아와 상호작용 하는데 있어 특징적인 행동들을 민감성 기준 점수와 비교해 보았을 때 남아는 5.67(문항 30)~9.00(문항 12), 여아는 5.67(문항 30)~9.00(문항 12, 문항 54)으로 민감성 점수는 남아, 여아 어머니 모두 높았다. 반면에 어머니들이 자녀와 보이는 행동으로 특징적이지 않은 행동들은 민감성 기준 점수로 남아는 1.33(문항 8)~3.50(문항 26), 여아는 1.00(문항 2)~3.08(문항 87)로 민감성 점수가 낮았다. 이를 통해서도 어머니들이 1세 영아와의 상호 작용에서 비교적 민감한 양육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1세 자녀를 둔 어머니가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상대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어머니들은 아기와의 상호작용이 적절하게 활발하고 재미있으며, 언제 상호작용을 끝낼지를 알아 잘 해결하는 점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문항 6, 53). 또한 아기의 행동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위치를 조절하여 항상 아기의 상태를 알고 있고 아기에게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서도 (문항 61, 63, 66, 68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우리 나라 어머니들의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의 양육 행동들이 다른 나라 어머니들의 양육 행동과 비교하여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는 현재로서는 비교할 자료가 없다. 자녀의 사회화에서 영아기에는 어머니 양육행동이 가장 중요한 사회화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각 나라에서 자녀 양육에 있어 가치, 철학을 비교하기 위해 추후 연구들에서 어머니 양육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가 필요하다.

둘째, 어머니들의 행동은 자녀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아 어머니들의 양육 행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어머니들은 1세 아들이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고 (문항 67 높음), 아들의 요구에 따라 낮잠 시간을 정하고 (문항 78 낮음), 아기와 일대 일의 놀이나 이야기, 상호 작용을 즐기고 (문항 30, 90은 높고, 문항 80, 84, 87은 낮음), 아기에게 대해 긍정적이며(문항 36, 37은 높고, 문항 19, 20, 26은 낮음), 아들의 신호를 적절하게 해석하며(문항 12, 58 높고, 문항 3, 19, 20은 낮음), 아기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속도와 방법으로 상호작용 한다(문항 9, 29, 64는 높고, 문항 3, 8, 16은 낮음).

여아 어머니들의 양육 행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어머니들은 1세 된 딸이 보이는 신호를 잘 알아 보고 (문항 12, 5, 58, 1의 점수는 높고 문항 2, 74, 20, 3의 점수는 낮음), 그에 따라 적절히 반응해 주어 (문항 9, 46의 점수는 높고 문항 4, 8의 점수는 낮음), 아기와 적절한 상호 작용을 하는 것(문항 87, 16, 57의 점수는 높고 문항 29, 54, 34의 점수는 낮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아 어머니에게 많이 관찰

되는 특징적인 행동들은 민감성 기준 점수가 높고, 잘 관찰되지 않는 특징적이지 않은 행동들은 민감성 기준 점수가 낮아, 전체적으로 볼 때 어머니가 1세 된 딸에게 더 민감한 양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와 여아의 어머니들이 취업 여부나 교육 수준에서 차이가 없음을 고려해 보면 자녀의 성에 따른 어머니 행동의 차이는 어머니들이 1세 아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아들이 보내는 신호를 바르게 해석하고 그에 따라 적절하게 반응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Q-set 문항별 평균에서 6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84개의 문항에서 남아 어머니들의 표준편차가 여아 어머니들 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남아 어머니들의 양육 행동이 여아 어머니들에 비해 개인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 어머니들의 개인차는 남아 어머니들의 특징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문항들의 평균이 여아보다 낮고(〈표 2〉와 〈표 4〉 참조), 특징적이지 않은 문항들의 평균은 더 높다(〈표 3〉과 〈표 5〉 참조)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남아 어머니들의 개인차는 양육 행동에 있어서의 단순한 개인차의 차이라기보다는 아기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머니들이 아들이 보내는 신호를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반응을 하며, 상호 작용이 재미있고, 적절한 자극을 주는 것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더 갖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어머니들이 여아보다 남아와의 상호작용에서 더 어려움을 가짐은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도 일치하는데 곽혜경과 조복희(1999)는 3세 유아의 양육 행동에서 중상류 계층의 어머니들은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통제적이었음을 보고하였다. 유우영과 이숙(1998)은 2~5세의 남아에게 어머니가 과보호 행동을, 여아에게는 일관된 행동을 보임을 보고하였다. 권연희와 박경자(1997)도 중류층 어머니들은 5세 아동의 양육에서 남아보다 여아에게 더 온정적이고 일관되게 대하며, 추론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남아에게 더 많은 양의 통제를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어머니들이 아들에게 민감한 양육 행동을 덜 사용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문혁준,

2000; 임희수·박성연, 1994; 정은숙, 1984; 천희영, 1993)의 결과로서 일부 해석될 수 있다. 문혁준(2000)은 아동의 기질이 까다로울수록 어머니의 훈육 방법이 비효율적이었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기질적 특성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행동에 초점을 두고 관찰하였으므로 어머니들이 아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딸과의 상호작용보다 왜 민감하지 못하고 더 어려움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 추후 연구에서 일방적인 어머니 양육 행동의 관찰보다 상호적인 관점에서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의 자녀 양육 행동은 안정성이 높아서 Roberts, Block & Block(1984)은 3세에서 12세까지 9년간의 부모 양육 행동에서 어머니는 전체 문항 중 3/4에서, 아버지는 1/2 문항에서 의의 있는 상관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어머니의 양육 행동 중 긍정적인 방식은 강화해 주고, 보완이 필요한 행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호작용 방법의 지침을 제공해 주어, 자녀의 최적의 발달을 도와줄 수 있도록 적절한 부모 양육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상호작용의 예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므로 연구 결과의 해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먼저, 본 연구는 외국에서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여 어머니 양육 행동을 관찰하였다. 어머니 행동 Q-set의 내용이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양육 행동을 관찰하는데 큰 무리는 없었으나,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양육 특성을 좀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관찰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특성상 가정 방문이 필수적이므로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머니가 제한되어, 임의 표집에 의해 연구 대상을 선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사회 계층상으로는 중상류층의, 그리고 어머니 특성상으로는 자녀에게 관심이 많은 어머니들이 더 많이 연구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셋째, 연구 절차상 어머니와 영아의 대표적인 행동 특성들을 관찰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한 번의 가정 방문에 의한 관찰에

기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영아 어머니들의 양육 행동 특성은 이와 같은 제한점을 감안하여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1세 영아를 둔 중증류층 가정의 어머니들을 민감성에 초점을 두고 관찰하여 어머니들이 실제로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를 기술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을 대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세 영아를 둔 우리 나라 어머니들은 영아들이 보내는 신호와 자녀의 상태에 대해 비교적 민감하고 적절하게 반응한다.

둘째, 어머니들의 행동은 자녀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어머니들은 1세된 아들보다는 딸과의 상호작용에서 더 민감하고 반응적이었다.

■ 참고문헌

- 곽혜경, 조복희(1999).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통제 전략과 유아의 자기 통제 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0(1), 165-176.
- 권연희, 박경자(1997). 친사회적 행동의 사회화에 있어 어머니 양육 행동의 역할. *생활과학논집*, 11, 91-101.
- 문혁준(2000). 아동의 기질적 특성과 부모 훈육방법. *대한가정학회지*, 38(6), 29-41.
- 박경자(1999). 영아의 애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어머니의 민감성과 영아의 기질. *아동학회지*, 20(3), 3-17.
- 박성연, 임희수(2000). 2~3세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변인들: 부모에 대한 애착 표상 및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1(1), 59-72.
- 박응임(1998).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 유아의 애착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3), 117-129.
- 연미희(1998).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7), 111-122.
- 유우영, 이숙(1998). 유아의 사회적 적응과 관련 변인간의 인과관계- 양육 스트레스원, 사회적지지,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0), 65-78.
- 이영, 신은주, 니중혜(1995 a). 영유아 양육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1): 가정과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15(2), 37-54.
- 이영, 신은주, 니중혜(1995 b). 영유아 양육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2): 저소득층 지역 비취업 모 가정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5), 165-177.
- 이은해, 박경자, 정현숙(1998).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가족 변인 및 보육시설의 효과. *대한가정학회지*, 36(6), 27-40.
- 임희수, 박성연(1994). 첫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관련 변인. *아동학회지*, 15(2), 153-168.
- 정은숙(1984). 아동의 기질과 인기도 및 양육태도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은영(1996). 어머니의 아동 양육 방식이 5세 아동의 애착 관계와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7(1), 213-226.
- 천희영(1993).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 태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14(2), 17-34.
- Ainsworth, M. D. S. (1979). Attachment as related to mother-infant interaction. In J. S. Rosenblatt, R. A. Hinde, C. Beer, & Busnel, M. (Eds.), *Advances in the study of behavior*, 9. Orlando, FL: Academic Press.
- Baumrind, D. (1973). The development of instrumental competence through socialization. In A. Pick (Ed.),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7.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 Belsky, J. (1981). Early human experience: A family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7, 3-23.
- De Wolff, M. S., & van IZendom, M. H. (1997). Sensitivity and attachment: A meta-analysis

- on parental antecedents of infa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68, 571-591.
- Fagot, B. I. (1997). Attachment, parenting, and peer interactions of toddler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3, 489-499.
- Frankel, K. A., & Bates, J. E. (1990). Mother-toddler problem-solving: Antecedents in attachment, home behavior, and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61, 810-819.
- Maccoby, E. E. (1980). *Social development: Psychological growth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San Diego, CA: Harcourt Brace Jovanovich.
-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E. M. Hetherington (Ed., P. H. Mussen, Genera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4th ed). New York: Wiley.
- Pederson, D. R., & Moran, G. (1995). A categorical description of infant-mother relationships in the home and its relationships to Q-sort measures of infant-mother interaction. In E. Waters, B. Vaughn, G. Posada, & K. Kondo-Ikimura (Eds.), *New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Caregiving, cultural, and cognitive perspectives on secure-base behavior and working model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0(2-3, Serial No. 244).
- Pipp, S., Easterbrooks, M. A., & Hamon, R. J. (1992). The relation between attachment and knowledge of self and mother in one-year-old infants to three-year-old infants. *Child Development*, 63, 738-750.
- Roberts, G. C., Block, J. H., & Block, J. (1984). Continuity and change in parents: Child-rearing practices. *Child Development*, 55, 586-597.
- Rubin, K. H., Hastings, P., Chen, X., Stewart, S., & McNicole, K. (1988). Intrapersonal and maternal correlates of aggression, conflict,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toddlers. *Child Development*, 69, 1614-1629.
- Waters, E., Wippman, J., & Sroufe, L. A. (1979). Attachment, positive affect, and competence in the peer group: Two studies in construct validation. *Child Development*, 50, 821-829.